

잘 나가는 수입차 없어서 못 판다



올 가장 많이 팔린 '메르세데스 벤츠 E 200'

연도별 수입차 등록현황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2014	14,849	13,852	15,733	16,712	15,314	17,803	18,112	16,442	17,027	16,436	16,959	17,120	196,359
2015	19,930	16,759	22,280	18,202	18,386	24,275	20,707	18,200	20,381	17,423	22,991	24,366	243,900
2016	16,234	15,671	24,094	17,845	19,470	23,435	15,730	15,932	16,778	20,612	19,361	20,117	225,279
2017	16,674	16,212	22,080	20,051	19,380	23,755	17,628	17,547	20,234	16,833	22,266	20,428	233,088
2018	21,075	19,928	26,402	25,923	23,470								116,798

5월까지 11만6798대 신규 등록

전년비 23.7% ↑ ... 역대 최고

벤츠 5개월 연속 판매 1위

광주·전남 전년비 400여대 늘어

국내 수입차 시장의 성장세가 무섭다. 판매량은 매일 가파르게 늘고 일부 모델은 없어서 못 팔 정도다. 국내 자동차업계로서는 내수 시장에서의 수입차 공세를 감당하면서 해외 판매량 전락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수입차 판매량 역대 최대=11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가 발표한 올들어 5월까지 수입차 신규등록대수는 11만 6798대로 작년 같은 기간(9만4397대)보다 23.7%나 증가했다.

지난달 신규등록대수도 2만3470대로 집계돼 작년 5월(1만9380대)보다 21.1%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대로라면 처음으로 25만대를 돌파할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이 나올 만큼 올 해 수입차 판매량은 역대 최고 수준이다.

수입승용차 판매량은 ▲2014년 19만6359대 ▲2015년 24만3900대 ▲2016년 22만 5279대 ▲2017년 23만3088대 등으로 가파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자동차업계는 그나마 일부 차종의 경우 물량이 없어서 못 팔았는데도 전체 수입차 판매량이 증가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 윤대성 부회장은 "지난달 수입차 시장은 일부 브랜드의 물량 부족으로 전월 대비 감소했다"고 말했다.

해외 공장에서 생산한 물량을 들여오는 방식이다 보니 수요에 따라 기민하게 물량을 늘리는 데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판매량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수입차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호도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는 게 업계 설명이다.

일부 지역이 아닌, 전국적으로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만하다.

광주의 경우 지난달 수입차 신규등록대수가 526대로 1년 전 5월(428대)보다 늘었다. 올 들어 5월까지 광주에 등록된 수입차도 2560대로 전년 같은 기간(2021대)보다 증가했다.

전남도 마찬가지로 올 들어 지난달까지 수입차 신규등록대수는 2102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1~5월) 1808대보다 늘었다.

◇벤츠, 5개월째 1위=메르세데스-벤츠는 5개월 연속으로 판매 1위를 지키며 시장을 이끌고 있다. 메르세데스-벤츠는 지난달 5839대가 팔려 다섯 달째 1위 자리를 유지했다. 지난달 벤츠의 국내 수입차 시장 점유율은 24.9% 에 이른다.

벤츠의 지난달 판매량은 지난해 5월 판매량 5063대보다 15.3%나 늘었다. 메르세데스 벤츠의 E 200은 올 들어 6193대가 팔려나가며 가장 많이 팔린 차에 이름이 올라갔다.

이외 BMW가 지난달 5222대, 폭스바겐 2194대, 도요타가 1455대, 아우디가 1210대, 랜드로버가 1066대, 렉서스가 1022대, 포드가 923대 팔리며 뒤를 이었다.

폭스바겐의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티구안'은 5월 베스트셀링 모델 2위(2.0 TDI, 1200대)에 올랐다. /김지를 기자 dok2000@kwangju.co.kr

전국 휴게소 8곳에 수소차 충전소

정부 친환경차 활성화 유도 인프라 확충

호남고속도로 백양사 휴게소 등 전국 8개 휴게소에 수소차 충전소가 설치된다. 수소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수소차의 장거리 이동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친환경차인 수소차 보급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에 수소차 충전소 8기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수소전기차는 연료전지에 충전한 수소와 공기 중 산소가 반응할 때 나오는 화학 에너

지를 전기로 바꿔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차세대 친환경차로, 현대·기아차는 올 들어 수소연료전지전기차(수소전기차·FCEV) '넥쏘(NEXO)'를 개발한 바 있다.

백양사 휴게소 외 영동선 여주(강릉방향), 경부선 안성(서울·부산) 및 인양(서울), 중부선 하남 민남(양 방향), 중부내륙선 성주(양평), 남해선 함안(부산) 등에도 설치된다. 수소차 충전소는 광주 2곳 등 전국 14곳에 설치됐다. /김지를 기자 dok2000@kwangju.co.kr

23개 세계 브랜드 200대 신차 감상

부산 국제모터쇼 17일까지...현대·기아차 미래형 SUV 공개

오는 17일까지 열리는 '2018 부산 국제모터쇼' (BIMOS 2018)는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과 친환경차의 미래를 엿볼 수 있는 전시라는 점에서 관심이 쏠린다. 현대·기아차를 비롯한 국내 4개 완성차 업체와 19개 글로벌 완성차 브랜드가 선보이는 200여대의 신차를 한꺼번에 감상할 수 있다.

◇현대차, 미래 SUV 디자인은?=현대차가 세계 최초로 공개한 'HDC-2 그랜드마스터 콘셉트'는 '감성을 더한 스포티함'이라는 현대차의 디자인 철학을 담은 차로, 향후 현대차 디자인의 방향성을 담았다.

2년 반 만에 나오는 '투싼 페이스리프트(부분변경) 모델도 아시아 최초로 공개했다. 투싼 페이스리프트는 3분기 출시된다.

◇기아차, 1회 충전으로 380km가는 니로 EV 공개=기아차는 니로EV의 내장 디자인을 처음으로 소개했다.

니로 EV는 지난해 국내에서 2만 4000여대가 팔린 '베스트셀링 하이브리드' 니로의 전기차 모델로, 1회 충전으로 최소 380km 이상(64kWh 배터리 기준, 자체 인증 수치) 주행거리를 갖는다.

기아차는 또 소형 SUV 콘셉트카 'SP'도 공개하고 미래 SUV 시장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다. 이외 한국GM은 쉐보레의 간판 중형 SUV '아리넥스'를 처음 공개하고 판매에 들어갔다.

◇자동차 박물관 만든 벤츠=메르세데스-벤츠는 자동차 박물관을 연상하게 하는 전시관으로 관람객들의 발길을 붙들고 있다. 창립자 카를 벤츠가 발명한 세계 최초의 내연기관 자동차 '벤츠 파텐트 모토르바겐'부터 첨단 자동차까지 벤츠의 130여 년 역사를 살필 수 있다.

벤츠의 전기차 브랜드인 'EQ'의 첫 소형 콘셉트카 '콘셉트 EQA'와 세계 최초로 공개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더 뉴 E 300 e'도 순수 전기 모드로 최대 약 50km(유타 기준)까지 주행할 수 있어 눈길을 끈다.

렉서스 코리아는 베스트셀링 모델인 신형 ES를 국내 최초로 공개했다.

'높은 수준의 승차감'을 업그레이드하고 휠베이스를 키워 더 넓고 여유로운 뒷좌석 공간을 확보했다는 게 회사측 설명이다. /김지를 기자 dok2000@kwangju.co.kr



기아차가 선보인 니로 전기차.

양우내안 **백운광장역 상가분양**

양우내안에 **주상복합 상가**

6월 15일 내정가 공개입찰

상가 **주차장 100여대 이상 확보!**

지하철 역세권 스트리트몰이 투자대세!

백운광장 200M 역세권 스트리트 상가

1522-9477

대통령령 제28838호 농업진흥구역

(2018년 5월 1일 시행 **대폭 완화**)

농림축산식품부
에너지관리공단
농협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가능

노후에는 태양광이 효자!!

- ▶ 정부에서 보장하는 안정적 투자
- ▶ 200KW설치시 연금처럼 월 500만원 꼬박꼬박 (25년동안 **년평균 6,000만원**)

땅만 빌려주셔도 임대료를 선불로 드립니다 (3,000평 이상)

연락주시면 방문하여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100년 기업 **해가온에너지 (주)해가온개발**

상담 전국대표 1588-1543 이길영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66 해가온빌딩 1층